

## 회원사소식

삼성에버랜드  
홈페이지, 최초 GD마크 획득 및 산자부장관상 수상



삼성에버랜드 기업홈페이지가 산업자원부가 수여하는 굿디자인 마크를 획득하고 기업홈페이지로는 최초로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굿디자인 마크 선정제도는 다양한 상품의 외관 및 기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제품에 굿디자인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삼성에버랜드 홈페이지는 각각의 사업을 상징하는 다섯 명의 인물을 메인화면에 배치시키고 각 인물을 클릭했을 때 마치 한 편의 CF를 보는 듯한 실사영상과 일러스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독특한 디자인 컨셉은 삼성에버랜드의 다양한 사업이 전달하는 '생활에너지'와 삼성에버랜드만의 사업가치를 사용자 스스로 감성적이고 직관적으로 느끼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호전기  
고효율 LED램프 美 본격 진출!

조명의 대명사로 불리는 번개표 금호전기는 이달 말 미국에 LED(MR-16)램프를 본격적으로 수출한다. 금호전기는 올해 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미주지역으로 연간 약 110만개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 회사가 미국에 수출하는 3W LED(MR-16) 램프는 Warm white 와 Cool white의 2가지 색상으로, 기존



20W 할로겐 MR-16 대비 전력 소모가 적으며 밝기는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전력이 부족하다고 알려진 캘리포니아 내에서 특히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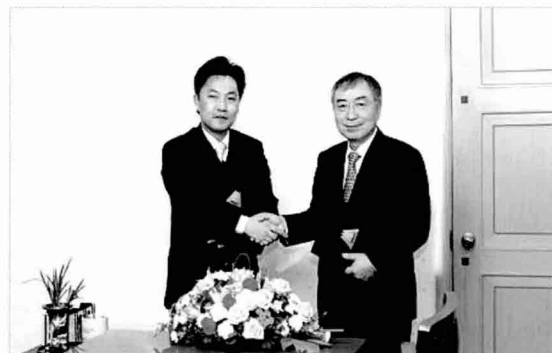
금호전기는 이번 LED(MR-16) 수출을 계기로 국내 조명 대표업체로서의 입지를 보다 확대해 나감은 물론 향후 高 와트 LED 및 형광등 대응으로 사용 가능한 LED형 PAR 38 램프 등을 수출, 미국 및 전세계 LED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케너텍  
한국중부발전과 185억 규모 공급계약

케너텍은 한국중부발전과 185억2900만원 규모의 보령 화력 1, 2호기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기자재 공급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22.2%에 달하는 금액이며 계약기간은 2009년 4월 말까지다.

한라건설(주)  
세운상가 5구역 MOU 체결

한라건설은 (주)부경코퍼레이션과 서울시 중구 세운상가 5구역 3만645㎡부지에 총 연면적 약 41만479㎡, 지하



6층, 지상41층, 835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오피스, 상업 시설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세운상가 5구역은 2011년 12월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고객감동 창의경영 최우수상 수상



서울시에서 주최한 “고객감동 창의경영 발표회”에서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단장 박수환)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박수환 단장은 고온의 배기가스가 연돌을 통해 대기로 방출되는 점을 착안해 그 열을 회수하기 위해 폐열회수장치를 설치 연간 약 17억원의 연료비를 절감했다. 또, 열전용보일러에서 생산된 증기를 높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구조로 개선해 연간 7억 6천만원의 수입증대를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했다.

폐열회수장치 설치와 열전용보일러 저압터빈 설치사업의 투자비는 ESCO사업자금을 활용해 초기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게 됐다.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박수환 단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창의적 업무혁신으로 보다 싸고 편리한 무공해 그린에너지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영평기계설비(주)  
ESCO사업 신수종발굴세미나 개최



영평기계설비는 직원들의 화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ESCO사업의 활발한 진출을 위해 ‘신수종 발굴세미나’를 개최했다.

포철기연  
범포스코 신년 행사, 직원들과 한자리에



포철기연 정상훈 사장은 정비 1과 중앙 작업진행실을 방문해 직원들의 새해 만복을 기원했다.

정 사장은 “창의적인 신기술 개발

과 차별화된 기술력 제고를 위해 2008년 한해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의식도 안전활동도 혁신하는 자세로 작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직원들은 “기존의 형식적인 시무식 행사를 벗어나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가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포철기연을 비롯한 범포스코 임직원들은 무자년(戊子年)을 Global POSCO Way의 실현, 새로운 신화창조를 위한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